

195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동일본 대쓰나미 재해자와 커뮤니티의 정신적 재건 – 재해지역의 인류학적 연구

강연자: 이인자(李仁子) 일본 도호쿠(東北)대학 교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를 졸업후, 일본 교토(京都)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한 후, 현재 도호쿠(東北)대학 교수로 재직중이고, 2011년부터 다년간 이인자 교수의 "동일본 대쓰나미 재해자와 커뮤니티의 정신적 재건"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4월 19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열렸다.

이인자교수에 따르면 진재지역의 연구에 있어서 피해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은 연구원들인데, 교수또한 이러한 연구자들 중 한명으로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여기서 쓰나미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평가할 때, 미디어 등 대중은 대개 피해지역의 가시적인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진재지역의 재건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재해지역의 복구에 있어서 비가시적인 재건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수가 연구하게 된 곳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했던, 쓰나미로 인하여 파괴되어버린 위험지역이 아닌, 피해가 없었던 그 주변의 마을이었다.

피해복구를 하는데에 있어 당장의 재건도 필수적이지만, 복구를 위해 피해전의 생활상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피해자들을 단순히 돕는 봉사자들과는 다르게 피해자들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들도 묻고 조사해야 하는 등, 입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에 있어 어느정도 곁끼러운 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거시적으로 재해지역에서의 "조사연구"는 10, 20년 후를 내다 봤을 때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피해지의 커뮤니티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지의 커뮤니티를 조사하는데에 있어서는, 행정구역의 정의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힐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마을일지라도, 아직 그 곳에 행정상의 적을 두고 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는 몇대를 걸쳐 내려져온 뿌리를 지키려는 심리적 차원의 이유, 근처 해역에서의 어업권 유지를 위한 실질적 이유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거기에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커뮤니티라는 용어에 대한 위화감도 행정구역의 정의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이는 재해 전, 각 마을 단위를 초월한 마을간의 교류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쓰나미로 인하여 재해 이전 오오카와 지구에서 근처 마을들의 시내역할을 큰 마을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 곳에는 피해를 입지 않은 마을사람들도 친척이 살고 있던가 하는 등, 상호간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였다.

이렇듯이, 피해지의 커뮤니티는 재해로 인하여 물리적인 붕괴뿐만이 아닌, 내부적으로도 붕괴되었다. 피해를 받지 않은 마을들과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인접한 마을들의 갭은 양쪽 모두를 멍들게 만들었다. 마을 내부적으로는 심지어 재해 전부터 품고 있던 균열과 불평등관계의 분출마저 보여졌는데, 이는 피해지역들이 전대 조상들의 인간관계까지 계승한 공동체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을내의 불평등 관계는 외부에서 온 봉사들을 동반한 커뮤니티의 부분적 급성장 등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는 긴

시간동안 만들어진 서열과 구조를 무시한 것으로서, 옛날부터 이어져온 마을내의 불평등을 외부인의 잣대로 평등하게 하려고 할 수는 없다.

이인자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난 5 년간의 재해지 복구에서 지대한 역할을 한 외부 봉사자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재해지의 재건에서 외부사람들의 역할은 매우 컸는데, 이는 그들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피해지역의 복구만을 도운 것이 아닌,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교수는 여기서 외부사람들이 마을사람들과 상당한 수준까지 관계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를 현대 젊은이들의 고향에 대한 의식부재로 보았다. 예를 들어, 나고야에서 온 봉사들 중 몇몇은 주기적으로 피해지역마을들을 고향으로 여기고 꾸준히 방문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인들에게 있어 자신들을 연관지을 수 있는 고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본다.

이런식으로 처음에는 봉사를 위해 마을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마을을 찾아오거나 결국에는 정착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는 매우 폐쇄적인 일본의 농어촌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몇세대 전부터의 신참자가 아닌, 새로운 현대판 신참자의 형태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들은 단순히 마을의 재건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을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다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마을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현상도 보이면서 재해 이후의 전통적인 일본 농어촌의 새로운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인자 교수는 피해지역에서 조사연구를 하면서 느낀점을 강연에서 모두와 공유하였는데, 교수가 느낀 주된 세가지는 첫째, 죽은자와 죽은자를 기리는 낮은 확실히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다는 점. 둘째, 마을의 재건을 위해 같이 땀을 흘린 외부 봉사자들과 같은 사람들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대쓰나미 이후 신참자의 등장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고 하며 강연을 마무리지었다.

#질의응답

질문: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피해지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오늘은 선생님께서 말하신 내용과 제가 경험한 것이 중첩되는 쪽을 질문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나가와라는 곳에 방문했었는데, 당시 제가 느낀 주민들의 상실감은 원래 하던 일상적인 작업에서 일이 사라짐에 따라 모든 관계자체가 무너지게 된 것과, 지역간 피해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생긴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한 관계의 두절이었는데 혹시 이러한 상실감은 어떻게 복구가 가능할지요.

두번째 질문은, 일본내에서 일련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피해지역에 봉사를 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피해지역에 도움을주려고 하는 생각등을 가지고 있는지요.

답변: 지금 마을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1 년후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다가올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지금은 다른 마을들과의 피해의 차이에서 오는 상실감으로 인해 차라리 우리도 피해를 받아 같이 가설주택에 살면 좋았을텐데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생각이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의 답변은, 이제는 미디어도 많이 들어와 있기때문에 많이 패턴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답변카드 중 하나를 선생님께 제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지역이 생겼을 때, 여태까지 다녔던 가고 있던 피해지에서 다른 피해지로 이벤트성으로 가는 등의 일이 생겼을 때, 균열을 초래하는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 5 년이나 도움을 받았는데 동북지방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 라는 등의 외부에서의 압박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람들의 주거가 금지된 위험지역들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생존자들 중에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살하는 케이스는 몇몇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역의 관리에 대해선, 지금 현재 정부가 나서서 농지로 복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타지에 사는 원래 마을 주민들도 마을의 총회나 명절 등에는 돌아와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신참자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만약 이러한 재해가 없었다면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농어촌사회에서 현재의 열린공간이 생길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역시 인간은 위기상황에서 뭉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점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저는 결국에는 남을 사람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신참자의 재밌는 점은, 마을에 오랜시간 존재하고 있는 질서를 무너트리고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보통 마을의 강한세력에 반하는 세력에 의해 외부에서 영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다시 그 사회에서 우세세력으로 성장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